

온 몸으로 만나는 자연이라는 경전



◇중원에서 덕유평전쪽으로 가는길에 만난 주막. 살아 천년 죽어 천년이라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세한에도 꽃꽂히기 어려웠다.

다 시 항적봉에 섰다. 낮게 내려 앉은 하늘에는 눈이 분분(紛紛)하다. 이렇게 한자말로 '분분'이라고 적고 보니까, '물물 날린다'는 우리말 만큼이나 정감이 간다. 귀에 닿는 맛이 비슷한 까닭이리라.

때로 '말의 내용'보다 '말투'가 더 중요한 것도 많이 지닌 음악성 때문이 아닌가 싶다. 어린 아이의 머리맡에서 들려주는 엄마의 옛날이야기가 가장가 될 수 있는 것도, 시(詩)가 산문보다 더 음악에 가까운 것도 같은 이치다. 따라서 같은 궁극적으로 소리를 지향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그 소리는 자연의 소리와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음의 경계로 떨어지고 만다.

백두대간 속으로 조금씩 더 들어서면 서부터는 부쩍 글쓰는 일이 어려워지고 조심스러워진다.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어렵거나 말의 낙차(落差)를 본 듯이다. 솔직히 부담스런 자각이다. 치기와 만음으로도 버릴까말까 한 형편으로는, 법랍하기 힘든 걸음을 잘 알기 때문이다.

언제를 시작한 지도 한참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것이 독자 여러분께 도리가 아니라는 점도 알았다. 그렇지만 결코 새삼스러운 고백은 아니다. 참으로 여러차례도, 이례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어쨌든 앞으로는, 거짓 감동을 쥐어짜 독자 여러분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꼭 밝히고 싶다.

항적봉 아래 중원에서 아침을 맞기로 했다. 백두대간이 덕유산을 벗어나는 지점은 백암봉이지만, 이왕이면 좀더 조망이 좋은 중원에서 해오름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조그마한 천막을 세우고 때 이른 잠을 청해 보지만 워낙 추운 탓에 쉽게 잠이 오지 않는다. 밖에서는 나무와 바람이 두런거리며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아침 일찍 산에 오른 사람들의 인기척에 잠을 깨다. 오늘도 또 한바퀴 돌아다. 산이 깨어나는 소리를 듣고 싶었는데... 아직 내 귀는, 자연의 내밀한 소리까지

들을 정도는 아닌 모양이다. 온갖 소음에 찌든 탓일까.

공공 오그라든 몸을 일으켜 세워 양껏 기지개를 켜 본다. 희한하게도 몸이 가벼운다. 땅상을 들뜬 받아서일까? 가 보지는 않았지만, 요즘 유행하는 황토방이라는 것도 이만한 못할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바람이 략차다. 하지만 빌딩 숲에 부딪쳐 멎든 바람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상쾌하다. 캐부 가득 들어마시며 돌 속 이곳저곳의 먼지를 털어본다.

이내처럼 갈린 구름을 비집고 햇살이 몸을 걸치자 나뭇가지들은 은빛으로 화답을 한다. 밤새 그렇게도 나무와 바람이 몸을 부비더니 이렇게도 눈부신 상고대를 만들었을까. 바람에 섞인 물 알갱이가 나뭇가지에 얼어붙어서 생겨나는 상고대는, 땅과 수직으로 쌓이는 눈꽃과 달리 땅과 같은 방향으로 나뭇가지에 얼어 붙어 있다. 그래서인지 그 모습은 꼭 바람의 몸짓 같다.

노릇이 아침을 먹고 모든 흔적들을 거둔 다음 백암봉을 향한다. 그 길이 곧 덕유평전을 가로지르는 길이다. 눈길인데 내리막길이지만 워낙 편안한 골짜기라, 머리 숙으로 익은 봄의 철쭉과 원추리를 그려 보며 할 만큼 흥을 돋운다.

항상 느끼는 바지만, 내리막과 오르막이 결코 다르지 않음을 새삼 실감한다. 하나로 어우러진 전체에서는 크고 작음, 오르고 내림, 높고 낮음이 결코 맞닿아 이 아니다. 우리의 옛 어른들이 우리 땅의 뼈대를 백두대간이라는 큰 줄기로 파악한 것도 그러한 인식의 결과일 것이다. 관주산 높은 봉우리를 추켜세우는 식의 발상으로는 대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백두대간을 걷는 행위는 정상을 정복(?)하는 일과는 성격이 달라진다.

인간 관계도 이러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른과 아이, 상사와 부하,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의 관계가, 수직의 위계가 아니라 '도래미파술라시도'가 만들어 내는 화음이나 '발주노초파남보'로 이루어진 투명한 빛과 같을 수 있을 텐데.

백두대간 속으로

(8)

덕유산→삼봉산→소사고개



◇덕유평전 내리막길, 5-6월이면 이곳엔 철쭉과 원추리가 되어 천상의 화원을 이룬다. 백두대간의 주름은 화면 왼쪽의 능선쪽으로 이어진다.

과도의 높낮이 한순간 몸바꿈하듯 높은산 낮은산 열싸안은 백두대간

이를 신경림 시인은 '산에 대하여'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한다. 그리 짝지 않은 사이지만 어디 한 곳 별 데가 없어서 그대로 옮겨 본다.

산이라 해서 다 크고 높은 것은 아니다. 다 험하고 가파른 것은 아니다. 어떤 산은 크고 높은 산 아래 시시덕거리고 웃으며 나즈막히 얼드려 있고 또 어떤 산은 험하고 가파른 산자락에서 슬그머니 빠져 동네까지 내려와 부러운 듯 사람사는 골을 구경하고 있다. 그리고는 높은 산을 오르는 사람들에

순하다순한 길이 되어 주기도 하고 남의 눈을 꺼리는 젊은 쌍에게 짐짓 따듯한 숨을 자리가 돼주기도 한다. 그래서 낮은 산은 내 이웃이던 간만에 인방 왕골자리처럼 때에 걸고 그 누더기 이불처럼 지내다가 배지만 눈개비나 무 할피나무며 모싯대 계속에 덮여 곤돌박이 개개비 휘파람새 노랫소리를 듣는 기쁨은 낮은 산만이 안다. 사람들이 서로 미워서 잡아죽일 듯 이빨을 갈고 손톱을 세우다가도 환담처럼 감기고 어울어지는 사람사는 재미는 낮은 산만이 안다. 사람이 다 크고 잘난 것이 아니듯 다 외치며 무뎌 서 있는 것이 아니듯 산이라 해서 모두 크고 높은 것은 아

니다. 모두 흰 구름을 거드랑이에 끼고 어깨로 바란 맛바아치며 사는 것이 아니다.

행여 이 시를 읽고, 낮은 산에 대한 시인의 깊은 애정을 높은 산에 대한 순가락질로 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그 대상은 높은 산이 아니다. 오로지 높은 데 오르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는 것을 즐

세로 여기는, 육식광과 포악한 일부의 인간을 향한 것이다. 산은 사람들과 다르다. 높은 산도 저절로, 낮은 산도 저절로, 결코 그렇게 산 것일 뿐이다. 마치 과도의 높낮이가 바다라는 한 몸의 순간적인 몸 바꿈이듯이, 백두대간 또한 그렇게, 높은 산 낮은 산이라는 층위를 두지 않고 이 땅을 한 몸으로 얼어안으며, 백두에서 지리까지, 지리에서 백두까지 그렇게 물결쳐 흐르는 것이다.

갈길이 바쁘게 너무 한 곳에 머무른 것 같다. 아차! 먼 길을 가노라면 이런 때도 있지 않을까 하고 너그러이 봐 주시리라 믿는다.

백암봉에서 이번 산행의 목적인 소사고개까지는, 지봉(1302.2m)과 대봉이

라는 봉우리를 넘는 동안 아끼지 않은 오르내림을 반복하다가, 대간을 가로지르며 무주와 거창을 연결하는 신동령이라는 고개마루에서 잠시 다리쉬음을 한 후, 덕유산(1264m)으로 숙주쳐 올랐다가 급히 떨어지며 소사마을에 이른다. 죽어 한 마을은 넉넉히 거를 만한 너른들을 부려 놓은 대간은 다시 이불만큼이나 넉넉한 대덕산을 오르게 되는데, 그곳은 다음을 기약해야 할 것 같다.

이번 산행에서도 백두대간은 언제나 그랬듯이,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지봉과 대봉 사이 투구봉 칼림길 봉우리의 조망이 아주 빼어나다. 오던 길을 되짚어 보는 눈맛이 보통이 아니다. 지리산의 연봉들이 가로로 펼쳐 보이며가 하면, 오른쪽으로 항적봉이 잡힐 듯 가깝고 왼쪽으로 멀리 가야산이 탐을 쌓아올린 듯한 모습으로 층층 산을 이루며 솟아 있다. 그런 기쁨과 팔만대장경의 위엄이 참으로 잘 어울린다는 생각은 내일의 여척일까.

이무든 우리는 지금, 자연이라는 경전의 백두대간 부분을 온몸으로 알아가고 있다.

글=윤재학 기자
사진=순재식(사진작가)

왕토 흙벽돌기계

실용신안 의정부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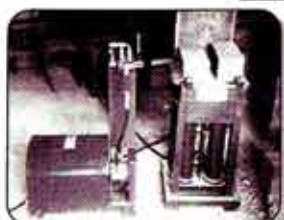
건강, 장수주택 왕토흙집에 희소식!!

왕토 흙벽돌 기계 반죽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왕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연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왕토마을



-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왕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천정 출장감독
- 왕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왕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

전통민간요법 방식 제조 / 발명특허 제117964호
기시달린 봉나무의 놀라운 효능!!!

꾸지봉(산봉) 엑기스 개발



꾸지봉 나무 꾸지봉 엑기스

1. 아령(산봉)에서 서식하는 꾸지봉나무를 재취하여 재를 생산
2. 전통방법에 의한 알탕추출법(10시간이상다림)
3. 수인보 특산물 지정
4. 공주대학교 식품공학과와 산학협력 체결(생산기술, 연구실증, 위생관리 제휴)
5. 충청북도 신자식인 선정(배정된 사항)

▶ 꾸지봉 엑기스는 이런 분들이 많이 찾으십니다.

각종암, 간질환, 당뇨, 고혈압, 변비, 성인병, 술 많이 드시는 분

꾸지봉나무란?

꾸지봉나무는 일반 뽕나무와 달리 줄기에 가시가 달린 것이 특징이다. 꾸지봉(산봉)은 생김새가 보기 좋은 편이 못되고 흔하지도 않은 까닭에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었지만, 약재로는 꾸지봉 나무처럼 여러 질병에 두루 뛰어난 효과가 있는것은 찾기 어렵다.꾸지봉나무는 여러면에서 뽕나무보다 비슷한 효과가 있는데 뽕나무보다 그 효능이 훨씬 더 강하다.

- 공주대학교 식품공학과 농학박사 민은식
- 모 도 MBC TV "고향은 지금", KBS TV "7시 뉴스", 중앙일보

구입문의... /수인보 본사 및 총판 (0441)845-0117 /청주점 (0431)213-2551 /대전점 (042)255-8027

* 전국 대리점 및 유통인 영업사원들 모집합니다 *

신라 충주대학교 TEL. (0441)841-5247
협동 (주)봉그린식품 충주시 살미면 용천리 433번지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설악산 신흥사 거룡 범주스님의

신식 권정콩 '金檀花'



"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엄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황물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뼉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변보다 더 더 쓰러라니까"

꽃나무와 소나무의 꽃진과 송진을 채취하여 두어달 발효시킨 뒤 마늘, 토종콩, 감초, 부추, 대파, 생강의 생즙을 낸 다음 꽃진 송진 발효된 것과 잘 혼합하여 권정콩을 액체에 담그다가 건조해 따뜻한 온돌방에서 10일간 말려내면 30세 이하가 복용하는 초벌콩 금단화가 완성되고, 이 과정이 두번, 내지 세번 반복되며 액체에 담그는 횟수에 따라 약효가 달라지는데 40세가 넘는 성인용의 경우 숙성 기간이 적어도 2개월을 넘는다는 설명이다. 하연 일면에서도 금단화를 제조하여 먹으면 좋겠지만 꽃진이 한 되에 기천만원의 호가하며 그마저도 국산 꽃진을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신식 권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9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정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든 치유해 낼 수 있는 인간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효능 당뇨,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정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① 상담문의 ☎ (02) 3437-8282 ①